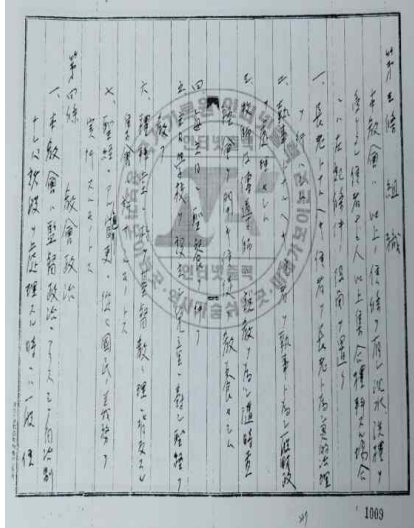


## 제14장 基督の教會-Ⅱ



조선총독부 관보, 基督의 教會(기독교의 교회) 교규(教規)- 2

### 第三條(제3조) 組織(조직)

본 교회는 이상과 같은 신조를 믿고, 침수세례(侵水洗禮)를 받은 신자 12명 이상이 集會(집회)로 모여 禮拜(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래와 같은 條件(조건)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세운다.

1. 長老(장로)는 신자 중에서 선출하며 靈的治理(영적치리)를 담당한다.
2. 執事(집사)는 신자 중에서 선출하며 一般財政(일반재정)을 處理(처리)한다.

3. 牧師(목사)와 傳道師(전도사)는 說教(설교)를 담당하고 신자들을 가르쳐 양육하기 위하여 隨時(수시)로 查經會(사경회)를 개최한다.
4. 매 주일 聖餐式(성찬식, 주의만찬)을 기념한다.
5. 主日學校(주일학교)를 설립하여 兒童(아동)들에게 성서를 가르친다.
6. 예배당에서 기독교 敎理(교리)에 背馳(배치) 되는 집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7. 모든 사람은 성서를 매주 읽고 지킬 의무가 있다.

基督の教會 교규 제3조 조직에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동석기 선교사는 1930년 11월 29일 함전교회를 설립한 후 ‘그리스도의 교회 10가지 특징’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 특징 중에서 “남자 신자 중에서 집사와 장로만 선출, 세례는 침수세례(침례)만 인정, 주일마다 주의만찬 기념, 악기 없는 예배(아카펠라 찬양)” 등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基督の教會 교규에는 ‘악기 없는 예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악기 찬양 문제에 관하여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동석기 선교사는 ‘성서 권위 회복, 원형의 교회 회복,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일치’에 매료되어 감리교회에서 먼저 Christian Church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다시

Church of Christ로 교적을 옮길 때는 “신약성서는 악기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므로 예배 중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성서적이다. 나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에서 악기를 포기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었다. 그런데, 왜? Christian Church 그룹과 Church of Christ 그룹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악기 찬양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둘째,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는 ‘목사(Pastor) 혹은 성직자(Reverend)’가 아닌 ‘전도자(Preacher, 설교자)로 호칭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역자 협의회에서 ‘호칭 목사(Minister)’ 제도를 1977년 8월 8일(월)부터 12일(금)에 있었던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하기 수양회(부산 일광해수욕장)에서 도입하면서부터 목사 호칭과 전도자 호칭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필자는 다수의 논문 발표를 통해 Church of Christ는 1977년부터 전도자가 요청하면 심의 통과 후에 목사로 호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수 문제는 자유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동석기 선교사의 기록인 基督の教會 教規 제3조 제3항에 보면 牧師(목사)와 傳道師(전도사)만 언급할 뿐 ‘전도자(傳道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는 점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당시 전도사는 감리교회만 있었던 제도였고, 가장 큰 교파인 장로교회는 목사와 조사(助師)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전도사 제도는 1945년 해방 후 어느 시점에 생긴 제도였다. 특히 한자표기로 뜻이 전달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에 ‘傳道者’는 감리교회의 ‘傳道師’와도 구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호칭으로 무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석기는 감리교회처럼 목사와 전도사를 사용하므로 ‘전도자 호칭 정착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다. 참고로 동석기의 묘비에는 Preacher(전도자)가 아닌 Minister(목사, 사역자)로 표기되어 있다.



동석기 선교사의 묘비(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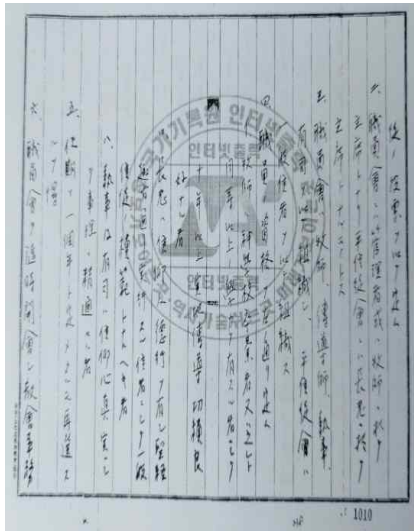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

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까? 1950년 6.25 전쟁이 휴전된 이듬해인 1954년 미국인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체계적인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의 기록들에서는 ‘전도자’로 호칭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인 선교사들의 사역 중에는 문서선교(文書宣敎)를 했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잡지(雜誌) 발행이었다. 이때 발간(發刊)된 잡지들을 읽다 보면 동석기를 ‘전도자’로 소개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초기 잡지에서는 또 다른 목회자에게는 ‘전도사’라고 소개되고 있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어서 의문점이 생긴다. 이는 ‘전도자’를 ‘전도사’로 잘못 인쇄 즉 오타였을까? 오자(誤字), 탈자(脫字)에 대한 교정을 보면서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한국어에 서툰 선교사들이 한글 발음의 어려움 때문에 ‘전도자’와 ‘전도사’를 짧은 기간 동안 혼용(混用)을 하였을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정리가 힘들었다.

#### 第 四 條(제4조) 敎會 政治(교회 정치)

1. 본 교회는 監督 政治(감독 정치) 또는 自由 政治(자유 정치)로 모든 사항을 처리할 경우 一般 信徒(일반 신도)의 投票(투표)로 결정한다.
2. 職員會(직원회)는 관리자 혹은 목사가 대표가 되며, 平信徒會(평신도회)는 장로가 대표가 된다.

3. 직원회는 목사, 전도사, 집사, ‘有司(유사: 사무와 재정 담당)’로 조직하고, 평신도회는 일반신자(一般信者)로 조직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基督の教會(기독교의 교회) 교규(教規)- 3

4. 직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목사는 神學校(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며, 신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傳導 功績(전도 공적, 목회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 (2) 장로는 信仰(신앙)과 德行(덕행)이 있어야 하고 성경에 能通(능통)하고 성경대로 사는 신자여야 하며, 그의 삶이 일반 신도에게 模範(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 (3) 집사와 유사는 신앙심이 진실하고 사리에 精通(정통)한 자여야 한다.
5. 任期(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再選(재선)되어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직원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교회 事務(사무)를 議論(의논)하고 처리한다.
7. 평신도회는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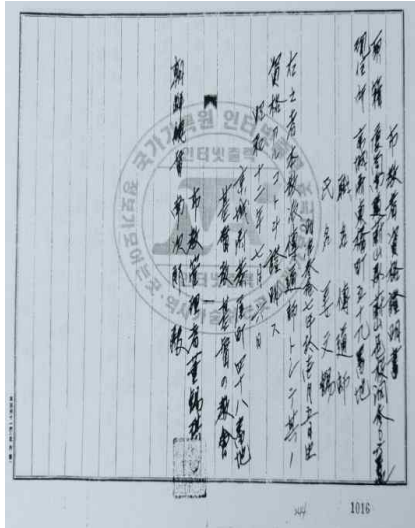
基督の教會 교규 제4조 교회 정치에서는 세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동석기 선교사는 제 1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치제도를 ‘감독 정치(監督 政治)’ 또는 ‘자유 정치(自由 政治)’라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감독 정치(the prelatical)’란,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교회 정치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 정치’는 동등한 권리와 권위를 가진 교인들이 교회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교회는 지방회나 총회 같은 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모임에도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리고 자유 정치를 채택한 교회가 만약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순전히 개인 자격일 뿐 대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정치제도는 ‘자유 정치’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데, 왜? 동석기는 감리교회의 ‘감독 정치’를 추가하였을까?

둘째,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7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정말 생소한 ‘평신도회’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신도회는 ‘일반신자들로 구성되고, 장로가 대표가 되며,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감리교회에서 익숙한 용어였기에 ‘평신도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석기가 말하고 있는 평신도회는 자유 정치에 등장하는 회중총회(會衆總會)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4항 제1호에서 목사의 자격으로 신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의 양호한 목회경력을 요구하므로 당시 교파형 교회 목사의 자격보다 훨씬 높은 자격 조건을 제시한 점이다. 당시 基督の教會 소속 목회자는 동석기, 강명석, 양석문, 이용주, 곽해민, 강종원, 유흥기 등 7명이 있었는데, 이 중 강명석의 ‘포교자(담임 목회자) 자격증명서’에 관해 살펴보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명석은 조선 남 감리교회 연회에서 1929년 9월 4일(수) 안수받은 목사의 신분으로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B. D. 학위를 받기 직전인 1935년에 환원하였다. 그리고 귀국하여 동석기가 基督の教會를 등록하면서 포교관리자(동석기)와 포교자(강명석)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데, 붙임서류 중에는 강명석(강문석)의 ‘포교자 자격증명서’가 있다. 이 증명서는 동석기가 ‘포교 관리자(그룹 대표)’ 자격으로



1937년 7월 6일(화)에 발급한 것으로 강명석의 직명(職名)을 목사가 아닌 ‘전도사’라고 했다.



조선총독부 관보, 강명석의 전도사 증명서(포고 자격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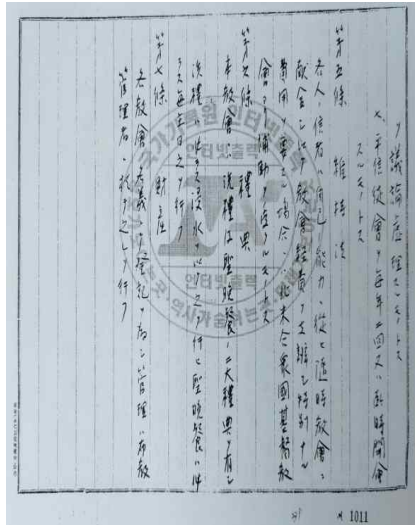
왜? 동석기 선교사는 강명석을 목사가 아닌 ‘전도사’ 신분증명서를 발급했을까? 확인해 보니, 강명석은 1927년 3월 일본 효고현(兵庫縣)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 있는 감리교회 계통인 간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Kwansei Gakuin University)을 졸업한 후부터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를 1935년 6월 졸업할 때까지 감리교회 목회경력이 8년 3개월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경력은 8개월(1936.12.~1937.7.)로 모두 8년 11개월로 1년 1개월의

목회경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 ‘전도사 증명서’가 발행된 것으로 짐작이 될 뿐이다.

그런데 왜? 강명석 선교사는 조선총독부에 포교자 포교 계를 제출하기 3개월 전인 1937년 4월 14일(수) 자 『기독신보』에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작성자 소개를 ‘牧師 姜文錫(목사 강문석)’이라고 하였을까? 또한, 동석기는 전도사로 증명서를 발급하여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을까? 그리고 강명석이 별세한 후에 장례식을 집례했던 Christian Church의 성낙소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강명석을 ‘강 목사’로 호칭하였을까? 그뿐만 아니라 선교비 모금과 선교 보고를 위해 만든 강명석의 ‘영문소개 인쇄물’에는 미국 Church of Christ에서 목회자들에게 호칭하고 있는 ‘Preacher(전도자)’가 아닌 ‘Evangelist(복음 전도자, 순회 목사, 선교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강명석도 ‘목사’ 혹은 감리교회 제도의 하나인 ‘순회 목사’를 그대로 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제5항에서 모든 직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였으며, 1년마다 재신임을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재신임을 묻는 절차는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특이한 방법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한번 시도(試圖)해 볼 만한 ‘목회자 재신임제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강단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 같고, 점점 ‘성직자화

(聖職者化)’ 되어가는 목회자의 교권도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성직자가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관보, 基督の教會(기독교의 교회) 교규(教規)- 4

## 第五條(제5조) 維持法(유지법)

각 신자는 자기의 能力(능력)에 따라 수시로 교회에 獻金(헌금)을 하고 교회의 經費(경비)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補助(보조)를 받는다.

## 第六條(제6조) 禮典(예전)

본 교회는 2대 예전인 洗禮(세례)와 聖晚餐食(성만찬식, 주의 만찬)이 있는데, 세례는 侵水洗禮(침수세례)

를 행하며, 성만찬식은 반드시 매 주일 행한다.

#### **第七條(제7조) 財産(재산)**

각 교회의 名義(명의)로 登記(등기)를 하지만 管理(관리)는 포교관리자(그룹 대표)가 총괄한다.